천주교의정부주보
DIOCESE OF UIJEONGBU

2020년 8월 16일
가해 · 제868호

• **발행인** 이기헌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연중 제20주일

입당송 시편 84(83),10-11 참조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제1독서 이사 56,1.6-7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로마 11,13-15.29-32

복음 환호송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마태 15,21-28

영성체송 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성지

황새 바위 순교 성지

충남 공주시 왕릉로 118

관할

대전교구 / 황새 바위 순교 성지 041-854-6321

공주에 있는 황새 바위 순교 성지는 조선 천주교회 박해 역사 100년 동안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처형된 장소로, 이름이 확인된 순교자가 337위에 이르고 무명 순교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공주는 내포와 더불어 천주교 전파가 가장 활발했던 곳이며, 조선 시대에 충청 감영이 있던 중심 도시였기에 충청도 전역의 신자들은 체포 후 배교하지 않으면 이곳으로 압송되었고, 다른 지역의 신자들도 이곳에서 최종형을 집행하였기 때문이다.

손자선 토마스 성인, 이존창 루도비코 순교자와 124위 복자 이국승 바오로, 김원중 스테파노, 이도기 바오로 등을 기억할 수 있다. 황새 바위 순교 성지는 충청남도 문화재 제178호로 지정되었으며 성당과 성체조배실, 십자가의 길, 성모 동산, 순교탑, 무덤 경당, 부활 경당, 묵주기도의 길이 조성되어 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며 매일 저녁 9시에 주모경을 함께 바칩니다. ✚

거룩한 도전

배경민 베드로 신부
광릉 협력사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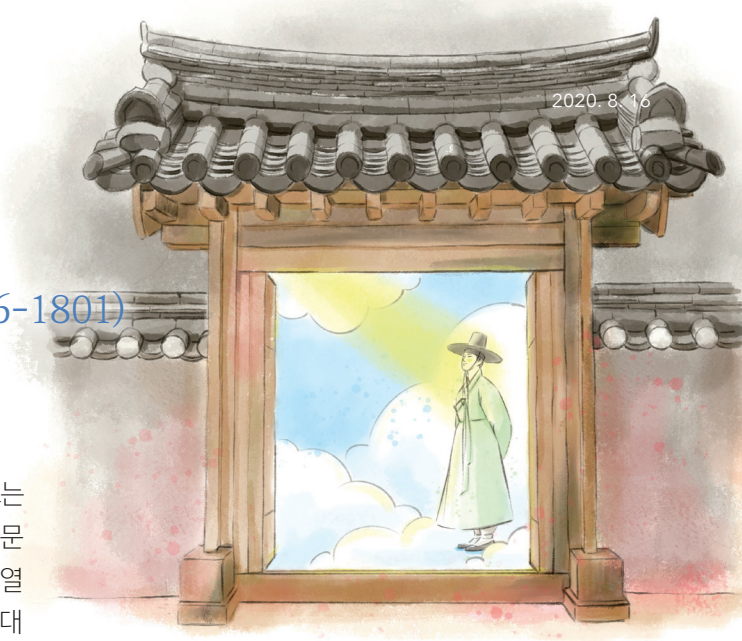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청하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여인은 그분께만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낮추어 강아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주님에게서 자비를 얻으려고 예수님께 자신의 집념을 고백하며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좋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열성으로 결국 여인은 바라던 대로 딸의 치유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28절).

이렇게 볼 때, 오늘 복음 메시지 중 놓칠 수 없는 것 하나는, 신앙의 거룩한 도전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속담에 '첫 술에 배 부르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만사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선하고 좋은 귀감이 될 만한 일을 시작하려면, 평소에 없던 어려움과 장애물이 나타나서 진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역사 안에 나타났던 수많은 신앙 선조와 선열들이 그러했듯이,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칠전팔기의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경우 어떤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적어도 크고 작은 시련과 노력을 수반하면서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루에 한 단계씩 진전해 가서 마침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때, 예상이나 상상을 넘어서는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예컨대 부의 양극화, 구조적 부정부패, 세습적 절대 빈곤, 생명 경시 풍조, 이기주의, 부익부 빈익빈, 기후 위기, 생태 환경오염, 배금주의, 다양한 인종 차별, 향락주의, 고질적 난민 문제 등등의 비복음적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여기저기서 어려움과 예상 못한 장애와 부딪히게 되지만 물러서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며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더욱 굳건하게 되고, 시험을 치르거나 유혹을 극복하게 되면 그만큼 더욱 강하게 되며, 소위 내공의 경륜이 쌓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의 다양한 굴곡과 희비의 쌍곡선을 겪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굳건하게 되어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일생은 어쩌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긴 정화와 연마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 생애를 통한 장기 피정 기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도 청하며, 이 시대에 더욱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상의 갑부에서 천상의 갑부가 된 호남의 사도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1756-1801)

호남 지역의 첫 신자이며 사도인 유항검 아우구스티노는 전주 초남이(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양반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그 집 땅을 밟지 않고는 열 곳이 넘는 동네를 못 지나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부호였다. 요즘 계산법으로 450만 평 규모라고 하니 유항검이 누렸던 세상의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랬던 그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지상 갑부의 삶을 버리고 천상 갑부의 삶을 살게 된다. 유항검은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경기도 양근에 살던 인척 권일신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함으로써 전라도 최초의 신자가 되었다. 이내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와 가족과 친척은 물론 집종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된 그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가난한 이웃과 종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궁궐 같은 기와집에서 살던 유항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전교당을 지었다. 이곳에서 유항검의 부인을 필두로 여인들은 큰 가마솥에 쌀밥을 가득 지어 지상의 양식을 나누었고, 유항검은 교리를 전하며 천상의 양식을 나누었다.

주문모 신부가 박해를 피해 지방을 순회할 때 유항검은 신부를 자신의 집에 모시며 전라도 지방 최초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또 주문모 신부와 함께 북경 교구의 구베아 주교에게 선교사를 태운 서양 선박을 조선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대박청래(大舶請來)' 계획을 주도했다. 훗날 이 계획은 유항검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죄목이 된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유항검은 체포되어 전주에서 한양으로 이송되었다. 대박청래 주동자로 지목된 그는 포도청과 형조, 의금부를 차례로 거치면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대역부도죄(大逆不道罪)로 사형을 언도 받고 전주 풍남문 밖에서 능지처사(陵遲處死,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을 머리와 몸통, 팔다리의 여섯 부분으로 잘라내는 극형)를 당하여 순교한다. 이때가 1801년 10월 24일, 그의 나이 45세였다. 살아남은 어린 가족은 노비로 끌려갔고, 재산은 깡그리 호조에 몰수되었으며, 그가 살던 집은 헐린 뒤 흔적조차 찾지 못하도록 연못으로 만들어졌다.
그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던 유항검의 집터에 초남이 성지(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초남신기길 128-5)가 조성되었고, 전주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치명자산 정상에는 유항검 일가의 유해가 모셔졌다. 오늘날 수많은 순례객이 그를 추앙하며 치열했던 순교 신심을 배우고 있다.

신앙 선조와 함께 하는 삶과 기도

"주님,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소서."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말씀 묵상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라.'(마태 6,19-20)

참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위원회 '복자 124위의 약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자료집' 3,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순교의 향기'-유항검,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오세택)

순교자공경위원회

”주님께 찬미드리며 / 탁스티드 THAXTED”

이새론 안토니오
이운형 마리아
김구환 루까

2015년 제8회 세계 가족 만남 대회 중 뉴욕 성 패트릭 성당에서 거행된 프란치스코 교황 집전 미사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진 성가가 있습니다. 작곡가 구스타프 홀스트(Gustav Theodore Holst 1874–1934)의 곡 탁스티드 THAXTED인데요, 마이클 페리의 1982년작 “그 어떤 찬미보다 더 높으신 하느님(O God beyond all praising)”의 가사로 불려진 이 곡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성가의 참맛‘에서 그 길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 해요. 출발합니다!

1925년, 영국의 저명한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는 성공회 신부인 퍼시 디얼머와 작곡가 마틴 쇼와 함께 성가책 <찬미의 노래들(Songs of Praise)>을 출판합니다. 기존의 성가책이 너무 ‘고품격 High church’으로 여겨져 신자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아이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친근한 성가들을 모으던 중, 자신의 ‘소울메이트’였던 홀스트의 곡들도 삽입하기로 합니다. 그 중 대표작인 <혹성들(The Planets)> 중 4악장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자, 목성(Jupiter, the Bringer of Jollity)”의 중심 멜로디를 이용해 만들어진 노래 “나의 조국에 나를 서약하리(I vow to thee, my country)” 또한 성가로 선정되어 수록하였는데, 이후 이 성가는 전 세계로 퍼져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성가는 가사와 가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음절이 같다면 같은 음절의 가사와 가락은 서로 바꿔서 부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홀스트의 성가 가락은 말씀드린대로 탁스티드로 이름 붙여졌는데요, 홀스트가 평생을 살았던 영국 에섹스의 한 동네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에 따라 탁스티드 가락에도 수많은 성가 가사들이 붙여졌고, 위에 소개한 “그 어떤 찬미보다 더 높으신 하느님(O God beyond all praising)” 가사가 그 중 제일 널리 알려진 가사가 되었지요.

주님께 찬미드리며 경배하오니,
그 놀라운 사랑을 나, 노래하리다.
무한한 주의 자비, 끝없는 축복은 주님의 선물,
그 모두 놀라운 신비.
이 마음을 드높이어 올려 드리니,
주님을 흠숭하며 나, 노래하리다.

이렇게도 널리 사랑받고 아름다운 가락을 가지고 있는 성가가 아직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그리는 것처럼 그립고, 하지만 또 어제 만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신비처럼 다가오는 성가, 그 오묘하고 아름다운 기도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 옆에 슬그머니 다가와 계신 주님을 느끼고 흠숭하며 계속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말이에요.

교구장 동 정

8월	18(화)	10시	교구청 회의
		16:30	신학생 연수 강의 및 기도 – 한마음수련원 피정동

교구 소식

가톨릭스카우트 대원·지도자 모집

대상 초,중,고(대원) 성인(지도자) **문의** 최병일 비오 010-9031-4542

1,2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8/21(금) 10시 **장소** 광릉 성당

2020년 1본당 1난민가정 돌봄사업 난민활동가 양성교육

일시 8/22(토)~9/26(토) 매주 토요일 6회, 10시~13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내 사적지 성당

대상 65세 미만의 남녀 교우

문의 구리엑소더스 031-566-1142

의정부엑소더스 010-9878-6926

파주엑소더스 031-948-8105

교구 내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

신자가정뿐만 아니라, 비신자가정, 복지시설등 관할구역 내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인적, 물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각 본당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월 행복충전소 모금액 3,372,930원

모금액 누계 총 843,894,871원 **저금통 후원: 031-850-1483**

'100원의 행복충전소'는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미사 · 피정 ▶▶

마재성지 수능 100일 미사

일시: 8/25(화)~12/3(목)

원하는 기간만큼 봉헌도 가능

가정 지향도 함께 봉헌됩니다.

문의: 031-576-5412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효소단식피정: 9/3(목)~9/6(일)

복음여행: 9/11(금)~9/13(일)

문의: 010-3340-0201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항공예약 포함하여 접수가능)

자연순례피정: 10/26~28, 11/6~8

성지순례피정: 8/31~9/3, 9/5~8, 9/16~19, 9/21~24, 10/7~10

접수: 02-773-1463, 064-756-6009

교육 · 모집 ▶▶

갈곡리 성당 사무직원 모집

대상: 세례를 받은 지 3년 이상인 교우.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자격증 사본.

접수처: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466번길 25 갈곡리 성당(우편접수만 가능, 전화문의 사절)

접수기간: 8/21(금) 우체국 소인까지

상세 내용 홈페이지 www.ucatholic.or.kr 갈곡리 성당 사무직원 모집공고 게시글 참고

"새로운 일상 안에서 하느님 만남"

일시: 9/3~11/12, 총 10주, 매주(목)13~15시

강사: 이명기 수녀(성심수녀회, 성서신학 전공)

강좌비: 25만 원(1박2일 피정 포함)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신청: 010-9099-2337 jesumaum.org

관상기도 배우기 24차(실시간 화상 강의)

일시: 9/8(화)부터 시작(5주간)

매주(화) 14시 /031-974-1728, 8/30마감

이메일 신청: chusimon60@gmail.com

성명,세례명,주소,전화번호 필히입력

자세한 내용은 신청 메일로 발송함

백송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모집(일산복지관)

대상: 장기요양등급판정어르신(3,4,5등급)

기간: 수시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문의: 031-975-1344

www.ilsanwelfare.or.kr 공지사항 참조

커피바리스타교육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주 1회, 12주)

담당: 이경훈 신부,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문의: 010-9040-8306,0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서울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일시: 9/8~1/19(금) 14시~16시(주간)

9/10~1/21(목) 19시~21시(야간)

장소: 가톨릭회관 205호, 주간/야간 318-2호

계좌: 우리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16만 원

문의: 서울마리아학교 010-9620-4820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요금: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5234호

전화: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안내 · 기타 ▶▶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우울,불안,가족갈등

전화상담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대면상담 02-990-9360 가족,심리,대인관계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접수

시설명: 바오로 성모의 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여성분)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번지

담당자: 윤향희 데레사 수녀 010-7353-6716

서울대교구 운영 정신건강의학과 카프성모병원

문의: 031-810-9200 /일산 백석역 5분거리

알코올중독 중점치료: 입원 및 퇴원 후 재활 치료

월~금 (09시~17시) / 야간진료 매주(화) 18시~20:30

www.karf.co.kr /소재: 경기도 일산

소규모양로원 우양의집 입소자 모집

대상: 65세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 -실비(1인실/2인실)

문의: 우양의 집 031-943-2120 (파주시 하지석길)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성 소 모 임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수시 상담 가능	본원 (빈센트 병원 뒤)	010-8833-8107
	한국순교복자수녀회	9/4(금)~6(주일)	복자사랑 피정의 집 (서울 성북동)	010-8765-5517

37 영성의 향기

씨 뿌리는 사람과 세 가지 타입의 사람

김동규 바오로 신부
대신학교 영성지도

마태오 13장 1-9절(마르 4,1-9; 루카 8,4-8)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해서 악마가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거두어 갑니다.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고통과 시련이 닥쳐오면 악마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말씀은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은 깨닫고 실천하여 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둘째 주간에는 "선택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 타입의 사람들"(149-157항)에 관한 묵상이 나옵니다. 말씀이 길에 뿌려진 사람은, 삶을 개선하려는 의향은 있지만 나약한 의지로 인해 시작조차 못하는 '첫째 부류의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이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사람은, 하느님께 나아가려 노력하지만 세상 걱정과 욕망, 시련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제 것을 포기하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둘째 부류의 사람'과 같습니다. 성전에서는 통회의 눈물로 거룩한 기도를 바치지만, 일상 안에서는 다시 온갖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이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마치 하느님을 위한 노력이였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가능한 신앙생활과 성직, 수도생활은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충만하지 못한 결핍된 은총, 완전하지 않은 불안한 행복감, 확신이 서지 않는 두려운 희망 속에서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목말라 합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는 태도로 실천하는,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 '셋째 부류의 사람'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며 단순히 절대적인 가난과 포기, 세속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세상 재물을 취하고 자발적으로 봉헌하고 희생하는(영신수련 155항) "내적 자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하느님 뜻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협력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의 반석이 없으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내적 자유'를 깨닫지 못하며, 복음은 도덕적 훈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복음적 사랑은 더 이상 일상에서 실천하기 불가능하다고 여기거나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는 환상이나 이상적 관념에 불과하게 됩니다.

매일 쌓여온 튼튼한 기도의 반석 위에서만이 신앙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으며, 비로소 내 안에서 육화된 '내적 성전'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내적 성전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실천이 아닌, 복음의 기쁨에 자발적으로 투신하는 '내적 훈련'을 통해서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길 바라는 길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